

(대한민국) 최고의 명품도시 	<b>시민중심! 행복삼척</b> <b>보도자료</b>	제 공 일	2022.6.29.(수)
		제공기관	삼척시청 문화홍보실



▷ 주요내용

- ◆ 삼척시,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
- ◆ 삼척지적자립지원센터, OBS 색소폰 경연대회 ‘특별상’ 수상
- ◆ 정년퇴임 맞춰 공직의 발자취를 남기다



삼 척 시

 <b>삼척시</b> SAMCHEOK CITY	<b>보 도 자 료</b>		 최고의 명품도시 <b>삼척</b>
보도일시	배포즉시보도	제공부서	기획조정실
		담당과장	우종원
배포일시	2022. 6. 29. [수]	담 당	기획담당 김정영 (033-570-3710)

## 제목 : 삼척시,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

### -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



- ☞ 최우수 : 『삼척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』
- ☞ 우수 : 『“관광지 관리” 베이비부머 세대 신노년 일자리 제공』
- ☞ 장 려 : 『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계획』

- 삼척시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‘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’를 선정하고 관련 공무원을 시상했다.
- 시는 사전에 부서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후 실무위원 평가와 직원 투표를 합산하여 최종 3건을 선정했다. 적극행정 최우수에는 『삼척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』 이 선정됐고, 『두 마리 토끼를 잡다! “관광지 관리” 베이비부머 세대 신노년 일자리 제공』 이 우수상으로, 『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계획』 이 장려상으로 각각 선정됐다.
-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업무 추진으로 인한 시민 생활편의·만족도 제고 등 시민 체감도, 새로운 업무 발굴·갈등 해소·협업 등 적극적 노력도와 창의성 등을 선정 기준으로 평가했다.
- ▲‘삼척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’은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수관로 정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▲‘두 마리 토끼를 잡다! 관광지 관리 베이비부머 세대 신노년 일자리 제공’은 관광지와 신노년 세대를 연계한 혁신 대응으로 사회 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창출 ▲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계획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시행으로 주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.

- 시는 최우수공무원에게는 삼척사랑상품권 30만 원, 우수공무원에게는 삼척 사랑상품권 20만 원, 장려공무원에게는 삼척사랑상품권 10만 원을 각각 시상금으로 지급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의식을 고취하고,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제작, 적극행정 온 등록 등을 통해 전파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.
- 삼척시 관계자는 “지속적으로 적극행정 발굴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.”고 말했다.
- 시는 지난해에도 ▲산불대응센터 신축 및 산불 선제적 대응 ▲장미공원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공청회 ▲공직비리 부패신고 핫라인 구축 등 7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.

▼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



 <b>삼척시</b> SAMCHEOK CITY	<h1>보 도 자 료</h1>		 최고의 명품도시 <b>삼척</b>
<b>보도일시</b>	<b>배포즉시보도</b>	<b>제공부서</b>	삼척시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
<b>배포일시</b>	<b>2022. 6. 29. [수]</b>	<b>센터장</b>	<b>박영만</b>
		<b>담당자</b>	<b>김진복</b> (033-575-0905)

## 제목 : 삼척지적자립지원센터, OBS 색소폰 경연대회 ‘특별상’ 수상

- 지난 5월 28일(토) 안양아트센터 관악홀
  - ☞ OBS 방송과 함께하는 ‘2022 이스트만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’
- 삼척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소속 동아리 ‘엔젤 색소폰’ 팀 특별상
  - ☞ 트로트 가요곡 ‘내 나이가 어때서’ 연주



- 삼척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소속 동아리 ‘엔젤 색소폰’ 팀이 지난 5월 28일(토) 경기도 안양시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열린 OBS 방송과 함께하는 ‘2022 이스트만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’에서 특별상을 받았다.
- ‘엔젤 색소폰’ 팀은 삼척시 관내 장애인으로 구성된 팀으로, 지난 2018년도에 결성되어 동아리 활동과 각종 행사 참여를 통해 꾸준히 실력을 갈고닦아 왔다. 그리고 그 뒤에는 이인성 이사부 색소폰 회장의 지도가 있었다.
-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본선 대회는 예선 통과된 연주자들로 진행됐으며, ‘엔젤 색소폰’ 팀은 트로트 가요곡 ‘내 나이가 어때서’를 연주해 특별상을 받아 상장과 상품으로 색소폰 BAM 케이스를 받았다.
-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다양한 연주로 서로 솜씨를 겨루며 경연을 즐겼다.
- 박영만 삼척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은 “앞으로도 ‘엔젤 색소폰’ 팀의 연주 활동을 도와 그들이 도전을 이어나가는 것을 돕겠고, 색소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에 앞장서겠다.”고 말했다.

▼ ‘엔젤 색소폰’ 팀 경연대회 사진



▼ '엔젤 색소폰' 팀 특별상 수상



 <b>삼척시</b> SAMCHEOK CITY	<b>보 도 자 료</b>		 최고의 명품도시 
보도일시	배포즉시보도	제공부서	문화홍보실
		담당과장	하영미
배포일시	2022. 6. 29. [수]	담 당	홍보기획담당 최유정 (033-570-3726)

## 제목 : 정년퇴임 맞춰 공직의 발자취를 남기다

- 이달 말 정년퇴직하는 박수만 前 삼척시 기획조정실장  
 ☞ 후배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비매품 책자 2권 출간  
 ☞ 『목민으로 본 공직 10억초 이야기』 『스마니 here and there 여행기』

- 정년퇴임에 맞춰 박수만 前 삼척시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6월 28일(화) 자신의 33년(10억초) 공직에서 한 일을 중심으로 『목민으로 본 공직 10억초 이야기』와 제멋대로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적은 『스마니 here and there 여행기』 라는 2권의 책자를 비매품으로 출간했다.
- 이 책은 공직자로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공로연수를 통해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고 후배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펴낸 것이다.
- 『목민으로 본 공직 10억초 이야기』에서는 목민심서와 고향, 공직에서 한 일,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기록했고, 『스마니 here and there 여행기』에서는 공직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찾아보았던 전국 여행지에서의 배울 점 등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했다.
- 박수만 前 실장은 “공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30년 이상 일만 하면서 지나온 터라 그동안 잘 챙겨주지 못한 가족들과 후배공무원, 주변 분들과 마음 편히 어울릴 수 있는 자연인으로 살면서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.”고 밝혔다.
- 박수만 前 실장은 1988년 고향 삼척에서 공직에 입문해 이달 말 33년 몸담아온 공직을 정년퇴직한다.

▼ 박수만 前 삼척시 기획조정실장 발간 책자 2권

